

尹, 추석 연휴 민생행보...경제·안보 챙기기 주력

“소비 진작·경제 활성화에 몰두” 총리 해임건의안 공식 언급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 민생 행보에 집중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연휴를 앞두고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 방안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쟁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번 연휴에도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당일 일본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과 만나는 것을 포함해 연휴 기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휴일에도 쉬지 않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거나 전통 시장을 방문해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과 만나는 일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군부대 시찰 일정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날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만큼 6일간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명절 기간 물가 안정과 소비 계층 돌보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거듭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주위에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 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저녁 미국 뉴욕에서 귀국한 직후 충남 공주에서 열린 지역 행사로 달려가 몸소 내수 진작에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튿날에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 공원에서 열린 장터를 찾아 추석 성수품을 골고루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최근 발표된 광주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이나 인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등도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가진 사안이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이르면 오는 26일 밤 나오는 만큼 그 후폭풍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통령실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내려놓겠다는 대신 공약의 연장선에서 수사에 관한 공식 언급을 피하고 있다.

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이를 정치 공세로 해석하며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한 총리와 이날 오후 오전을 겸한 주례 회동을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총리가 소임을 다 하고 있다”며 “야당의 해임 건의에 대한 답변은 그걸로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영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대법관회의 권한 범위 등 논의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 지연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금일 오후 3시 선임대법관 주재 대법관회의

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회의 안건은 지금의 대법원장 권위 관련 일반적 논의”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이론상 가능하더라도 권한대행이 사법부 수장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존재 이유’로 꼽히는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법적으로는 대법관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면 되지만 보통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실득 끝에 과반 의견을 도출한다.

일선 법원의 법률 해석을 바꾸고 사회에 큰 영

향을 미치는 판결이 전원합의체에서 나온다. 현재 총 5건이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으로 계류 중이다.

내년 1월에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다. 후임 대법관의 제정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월에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돼 있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4~6일 안에 국회가 분회의를 개최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해 주기를 바라는 기류가 강하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가결 여부도 변수다. 청문회 과정에서 떠오른 재산 문제 등을 이유로 부결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 이 경우 공석 상태가 연말까지 계속돼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한총리 “시진핑 회담서 정상간 소통·방문 한 뜻”

덕수궁 돈덕전 개관식 격려사 “대한민국 자강·자주 외교 상징”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통해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의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정상 간 소통과 방문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덕수궁 돈덕전 개관 기념식 격려사에서 지난 23일 시 주석과 양자 면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를 통한 연대와 협력,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발전하는 세계질서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제국 영빈관 등 외교 공간으로 쓰였던 덕수궁 돈덕전은 100년 만에 재건돼 오는 26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대한제국은 황궁이었던 이곳 덕수궁에 외교 중심이 될 건물을 짓고 ‘덕이 있는 자를 후대한다’는 뜻을 가진 ‘돈덕전’으로 이름 붙였다”며 “‘덕이 있는 자’는 상호교류를 통해 신뢰

를 쌓아 나가야 할 세계 여러 나라를 의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제국은 이곳에서 제국주의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고 자주독립 국가로 바로 서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대한제국의 자주와 자강의 외교정신 상징이 바로 ‘돈덕전’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고자 한다”며 “자유, 민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연대에 이바지하고 안보 위협과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구촌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윤 대통령 지지율 37.8%...2.3%p 올라

리얼미터 조사...부정평가 59%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3%포인트(p) 오른 37.8%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부터 30% 중후반대에서 소폭 등락(38.3%→35.6%→37.6%→35.4%→36.7%→35.5%→37.8%)을 반복하고 있다.

부정 평가는 2.8%p 내린 59.0%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는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방미 중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외교활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권역별로 보면 인천·경기(6.5%p ↑), 부산·울산·경남(5.3%p ↑), 서울(4.2%p ↑), 대전·세종·충

청(3.7%p ↑)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광주·전라(9.4%p ↓), 대구·경북(3.5%p ↓)에선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50대(4.9%p ↑), 30대(4.6%p ↑), 60대(3.1%p ↑), 40대(2.7%p ↑)에서 상승했고, 20대(2.2%p ↓)에선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3.4%p ↑)과 보수층(1.2%p ↑), 진보층(0.6%p ↑) 모두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2023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업

국제농업박람회

농업 세상을 바꾼다

10. 12. 목 ~ 10. 22. 일 (11일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일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옆)

전라남도